

기출 문제

(가) 스키너는 강화의 방법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소설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월든 투』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월든 투’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에는 범죄나 분쟁과 같은 문제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매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한다. 이 곳에서는 질투나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강화의 방법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 시기부터 아이들은 반복적인 상벌을 통해 자기의 이기심을 통제하고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된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 살이 되면 사탕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사탕을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저녁 시간에 모두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사탕을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저녁 식탁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만 쳐다 볼 뿐 아무 것도 먹을 수 없게 된다. 스키너는 『월든 투』에서 강화의 방법이 결국 모든 사람이 어울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나) 검(儉)이란 무얼까?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고운 비단으로 된 옷이야 조금이라도 해지면 세상에서 볼품없는 것이 되어 버리지만, 텅텅하고 값싼 옷감으로 된 옷은 약간 해진다 해도 볼품이 없어지지 않는다. 한 벌의 옷을 만들 때 앞으로 계속 오래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며, 곱고 아름답게만 만들어 빨리 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옷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곱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지 않게 되고, 투박하고 질긴 것을 고르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다.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 가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나 생선이라도 입 안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물건이 되어 버린다. 삼키기 전에 벌써 사람들은 싫어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 때문이니,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속이면 제일 나쁜 일이고, 임금이나 어버이를 속이거나 농부가 같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동업자를 속이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입과 입술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 동안만 지내고 보면 배고픔은 가셔서 주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해야만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금년 여름에 내가 다산(茶山)에서 지내며 상추로 밥을 싸서 덩이를 삼키고 있을 때 구경하던 옆 사람이 “상추로 싸 먹는 것과 김치 담가 먹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답해 “그건 사람이 자기 입을 속여 먹는 방법입니다.”라고 말하여, 적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을 먹으려고 애써서는 결국 변소에 가서 대변보는 일에 정력을 소비할 뿐이다. 그러한 생각은 당장의 어려운 생활 처지를 극복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귀하고 부유하고 복이 많은 사람이나 선비들이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유지해 가는 방법도 된다.

(다) 2002년 미국에서 10대들이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체인 M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들은 M사가 지나친 광고와 교묘한 판매 방식으로 청소년들을 과식으로 유도하고 비만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반론도 제기되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의 책임을 기업에게 물리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M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의미가 있다.

햄버거를 사 먹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면 점원이 묻는다. “900원만 더 내면 감자튀김과 콜라를 함께 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드릴까요?”라고 물으면, 별 고민 없이 “예.”라고 대답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햄버거 하나만 주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햄버거 외에는 살 의도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감자튀김과 콜라를 소비하게 된다. 여기에는 나의 자유의지가 작용한 것일까? 아니면 햄버거 세트를 팔기 위한 교묘한 전략에 넘어간 것일까?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자유 시장이라는 표현은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조직되지 않는 소비는 없다’고 했다. 기업이 광고와 마케팅 등으로 소비의식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어떤 제품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제시문 (가)의 ‘강화’와 (나)의 ‘검’(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400~500자, 150점, **제시된 작성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
2. 제시문 (다)의 논지를 기술하고, 이를 제시문 (가)와 (나) 모두를 논거로 활용해 옹호하거나 반박하시오. (1100~1200자, 350점, **제시된 작성분량 미준수 시 0점 처리됨**)